

치솟는 집값... 10명 중 4명 "생계에 부담"

“문화→저축→식비 순 아껴”

저소득층 임대주택 확보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꼴로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2%가 “주거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고 17일 밝혔다.

연령으로 30대(53.0%)와 40대(49.5%), 월소득 기준으로 299만원 이하 저소득층(50.3%)과 300만~499만원의 중소득층(49.5%)에서, 거주 유형별로는 전세(60.5%)와 월세(64.2%) 가구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8.2%), 서울(40.5%), 중부(41.0%), 영남(43.4%), 호남(38.7%)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도 43.6%에 달했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30~40대 저·중소득층 임차 가구의 소비 위축 정도가 컸는데, 문화여가비(34.7%)와 저축·보험(30.1%) 항목에서 씀씀이를 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낀 것은 식비(14.7%), 피복비(10.7%), 교육비(5.8%), 의료비(3.8%) 순이었다. 20대(52.3%)와 월세가구(46.5%)가 문화여가비를 줄이는 경향이 컸고, 저축과 보험은 50대(33.3%)가 주로 지출을 줄였다.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평균 전세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평균 주택 전세가격(1억5900만원)보다 2100만원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응답자들의 체감 전세가격이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인천·경기중부(1억8600만원), 영남권(1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내년 전세가격이 가구당 평균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

했다. 월세는 체감 가격(58만원)과 실제 가격(56만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1년 후 월세가격이 평균 5만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의 적정 수준이 평균 14.9%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기준 RIR(24.2%)과 비교해 10%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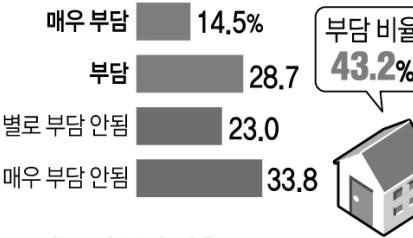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전·월세난 완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42.4%),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26.3%), 저소득층용 주택바우처 도입(18.9%)을 선호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담은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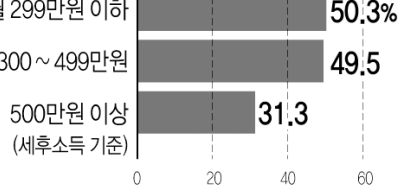
한편 이번 조사는 자가·전세·월세 등 전체 거주유형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유선전화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거비로 인한 생계 부담 조사

전국 성인 남녀 805명 대상
체감 전월세 및 전월세 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소득수준별 부담 비율



거주유형별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연방뉴스

LH, 여수 수정동에 행복주택 200가구

16~36㎡형 2018년 준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명현)는 여수시 수정동 행복주택 200가구 사업계획(조감도)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수정동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89가구, 26㎡ 39가구, 36㎡ 72가구로 구성된 총 200가구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7년에 공급예정이며, 2018년에 준공된다.

행복주택은 가구수의 80%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60~80%수준)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동 행복주택은 LH와 여수시가

지난 달 초 수정동 구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여수시는 앞으로 토지 제공과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LH는 사업부지 조성 및 주택건설 등에 나선다. LH와 여수시는 행복주택 인근에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변 거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수정동 주변에는 한영대·오천산단 등이 위치하고 KTX엑스포역이 가까워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 등의 주거 수요가 많다”며 “젊은 세대의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년 광주에 1만2186가구 입주... 2.7배

광주에 1만2186가구 등 내년에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28만3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보다 12.8% 늘어날 수 있다.

17일 부동산 포털 닷자닷컴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임대 포함)는 총 467개 단지, 28만360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5만2122가구보다 3만2천404가구(12.8%) 늘어날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160개 단지 11만6034가구, 5대 광역(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 110개 단지 6만2280가구, 기타 지방에서 197개 단지 10만5292가구 등이 주안을 맞는다.

내년에 수도권은 올해 10만3738가구보다 입주 물량이 11.8%(1만2296가구) 늘어나는데 서울은 올해보다 18.8%(3938가구) 늘어난 49곳 2만4876가구, 경기도는 24.7%(1만6399가구) 늘어난 104곳 8만2658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은 8곳 85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광주는 입주 물량이 올해 4885가구에서 내년엔 1만2186가구로 2.7배 늘어난다. 대구도 내년 입주 물량이 2만7953가구로

올해보다 1만3944가구 늘어 거의 배(99.5%)로 증가한다.

반면 울산은 올해 1만205가구에서 내년엔 3138가구로 많이 줄어든다.

월별 입주 예정 물량은 내년 6월이 2만9665가구가 가장 많고 이어 11월 2만7752가구, 12월 2만7740가구 순이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달은 3월로 1만8769가구가 예정돼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 하자 판정 쉬워진다

콘크리트·마감재·창호·난방 등 설계도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인지 판정할 때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 계약 체결 때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내외장재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른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

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분·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하게 했다.

또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마감부위 균열과 관통부·싱크대 마감, 결로, 창호기능, 난방설비, 폐쇄회로(CC)TV 등 감시제어설비, 조정수 식재 등의 하자판정 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이 명확해지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판정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불박이장 습기 해결’ 건설기준 마련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드레스룸과 불박이장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박이장과 드레스룸은 될 수 있으면 외벽에 접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기설비와 난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결로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습기를 없애도록 준공에 앞서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이나 ‘플러쉬아웃’을 실시하게 하고 열교환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막고자 열교환단열재 사용을 확대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베이크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촉진하고 나서 환기해 이를 제거하는 방법, 플러쉬아웃은 외부공기를 실내에 유입시켜 실내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입법예고와 후속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세부기준은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관심 물건



◆여수시 소재 연립주택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둔덕동 475-61 대교빌리지빌라 제103동 제3층 제301호
- 관리번호 : 2015-13331-001
- 면적 : 대 310.7187㎡ 지분(총면적 9,943㎡), 건물 199.8727㎡
- 감정가격 : 금 488,000,000 원
- 최저입찰가격 : 금 488,000,000 원
- 입찰기간 : 2016.01.18. ~ 2016.01.20.
- 내용 : 전남 여수시 둔덕동 소재 '11호광장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이 혼재한 기존 주택지대임.



◆영암군 소재 답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1743
- 관리번호 : 2015-16251-001
- 면적 : 답 5,000㎡
- 감정가격 : 금 57,500,000 원
- 최저입찰가격 : 금 57,500,000 원
- 입찰기간 : 2016.01.18. ~ 2016.01.20.
- 내용 :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송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위주의 순수경지정리대임. 경지정리된 농촌지대로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가능하고 현장입찰은 없다. 문의(1588-5321)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